

서울 주보

제2607호
2026년 4월 5일(가해)

주님 부활 대축일



〈부활 감사송 1: 파스카의 신비〉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날,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제1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물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행렬, 파스카 찬송)

제2부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 1,1-2,2(또는 1,1.26-31ㄱ)

화답송 | 시편 104(103),1-2ㄱ.5-6.10과 12.13-14ㄴ.24와 35ㄷ(◎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 창세 22,1-18(또는 22,1-2.9ㄱ.10-13.15-18)

화답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 탈출 14,15-15,1ㄱ

화답송 | 탈출 15,1ㄱㄴㄷ-2.3-4.5-6.17-18(◎ 1ㄱㄴ)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 이사 54,5-14

화답송 | 시편 30(29),2와 4.5-6.11-12ㄱ과 13ㄴ(◎ 2ㄱ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 이사 55,1-11

화답송 | 이사 12,2-3.4ㄴㄷ.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 바룩 3,9-15.32-4,4

화답송 | 시편 19(18),8.9.10.11(◎ 요한 6,68ㄷ)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 예제 36,16-17ㄱ.18-28

화답송 | 시편 42(41),3.5ㄱㄴㄷ; 43(42),3.4(◎ 42(41),2)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서간 | 로마 6,3-11

복음환호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8,1-10

제3부 세례 전례

(성인 호칭 기도, 세례수 축복, 물 축복, 세례 서약 갱신)

제4부 성찬 전례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입당송 | 시편 139(138),18.5-6 참조

제1독서 | 사도 10,34ㄱ.37ㄴ-43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 콜로 3,1-4(또는 1코린 5,6ㄴ-8)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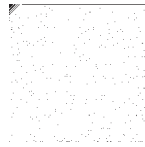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음 | 요한 20,1-9

(또는 마태 28,1-10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침묵, 부활을 개키다



김남균 시문 신부 | 문화홍보국장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가고 싶어집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겁니다. 아직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런데 무덤 안에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와서 무덤 안을 봅니다. 수건이 따로, 아마 포가 따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전합니다. 그냥 텅 빈 게 아니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훔쳐 갔다면 저렇게 두고 가지 않습니다. 급하게 도망쳤다면 더더욱요. 서두르는 사람은 개켜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설명되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아무 미련 없이 떠난 것처럼. 그 정돈된 침묵 앞에서, 다른 제자는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빈 자리를 보고, 그냥 믿은 겁니다. 어떤 믿음은 그렇게 옵니다. 증거가 아니라, 고요함으로. 이 장면은 우리 삶과 많이 닮았습니다. 부활은 화려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팡파르를 불지도, 하늘이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

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순간을 만납니다. 오래 앞던 분이 어느 날 조용히 평화로워지거나,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던 관계가 어느 틈에 조금씩 나아지거나, 포기했던 일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거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주 조용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 조용한 자리가 바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내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이미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야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부활은 그렇게 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막혀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사실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은 아직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빈 무덤이 있을 겁니다. 오래 닫혀 있던 마음의 어느 구석, 이미 끝났다고 여겼던 어떤 희망,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관계. 그 자리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비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느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어두울 때, 이미 일어난 일처럼.

그림 해설

부활초 | ‘침묵’의 이름이던 촛불이 ‘기쁨’의 또 다른 이름 되어 어둠을 밀어냅니다. “용약하라.”라고 시작하는 ‘파스카 찬송’은 천사들마저 조아리게 하는 가슴 벅찬 사랑으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심지 돋운 촛불을 안고서 고개 돌려 평화의 인사를 건네면, 너도 나도 빛에 물든 얼굴들! 사람이 무엇이기애 이토록 돌보시는지, 차마 다 알지 못할 당신의 사랑이 건너건너 온 땅으로 번져 갑니다.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순종’의 마음을 돌아보며



최인아 마리아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며칠 전 원고 청탁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용건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서울주보에 글을 쓰라는 내용이었어요! 전화를 건 수녀님께서는 일정이 촉박하다며 미안해하셨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롱 신자’인 제가 주보에 글을 써도 될지 걱정부터 든 거죠. 저는 이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그러자 ‘얘야, 내가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20년도 더 걸렸거든요. 마음은 진즉에 성당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뭘지 모를 턱이 저를 가로막곤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세례받았으니 눈물을 하염없이 쏟았죠. 한데 저는 갈팡질팡하며 긴 시간을 흘려보내면서도 세례명은 일찌감치 정해뒀습니다. 마리아! 나중에야 너무나 큰 이름을 정했음을 알고 어쩔 줄 몰라 했네요.

저는 ‘순종(順從)’하고 싶었습니다. 잘 낳다고 머리 쳐들고 살다 돌아본 어느 날 중요한 깨달음이 제게 왔습니다. 작은 것들은 제가 고민하고 결정해서 했지만, 제 인생을 꼴지운 큰 것들은 알고 보니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였어요! 하고 싶다가나 해야겠다는 결심이 채 서기도 전에 제 마음이 이미 그리로 향했고 정신을 차려보면 저는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그분이 하신 일임을 깨달았고 그 음성을 찾아 듣고 싶어졌습니다.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겐 주님 탄생 예고 순간의 마리아야말로 순종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루카 복음서 1장 26-38절의 그 구절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자,

마리아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답하는 그 구절 말입니다. 이보다 더 지극한 순종의 마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마흔 몇의 저는 이 구절을 마음에 들었고 순종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의 길로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둔한 사람에겐 어렵게 먹은 마음도 오래 지속되지 않나 봅니다. 시간이 흐르자 당시의 뜨거웠던 마음은 흐릿해지고 저는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런 중에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 ‘다시 그 마음을 돌아볼 때구나.’ 하고 알아듣습니다.

작년에 졌던 꽃들이 다시금 싹을 틔우네요. 곧 꽃봉오리가 열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피겠지요. 창피를 무릅쓰고 고해성사 같은 글을 쓴 저 또한 이 봄을 지나며 ‘부활’을 꿈꿉니다. 저도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애인 자립의 꿈을 키우는 스마트팜을 조성해주세요!



발달장애가 있는 정수 씨(가명)가 바오로교실 보호작업장에 출근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메마른 화분도 그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으면 다시 생명력을 틱워냅니다.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흙을 만지고 식물과 교감하는 순간만큼은 장애의 장벽이 한결 낮아집니다. 정수 씨의 꿈은 직접 정성껏 키운 싱싱한 채소를 동료나 이웃과 나누고, 스스로 돈을 버는 ‘농부’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키운 것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줄 때 가장 행복해요.” 정수 씨의 이 한마디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과 스스로 서고 싶은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을 깨고 움트는 봄꽃처럼, 바오로교실 보호작업장은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사회 안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일터입니다. 올해로 설립 43주년을 맞이했으며, 카리타스 정신을 바탕으로 23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상생활 훈련과 작업훈련을 바탕으로 자체 생산품인 누룽지과자 제

조 등 직무를 수행하고, 정당한 대가의 급여를 받으며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소중한 ‘직장’입니다.

낮선 환경이나 돌발 상황에 취약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공간과 예측 가능한 하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 동료들과 소통하며 규칙적인 사회생활을 배우는 경험은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해 가는 통로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바오로교실 보호작업장은 그 울타리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해, 새로운 직업재활 프로젝트인 ‘도심형 스마트팜’을 시작하려 합니다.

도심형 스마트팜은 온·습도와 조명 등 작업 환경을 비교적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 날씨와 계절에 흔들리지 않고 연중 꾸준한 근로와 훈련을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과정을 살피고, 수확해 선별·포장하는 일은 단계별로 나눌 수 있어 각자의 속도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맡길 수 있는 직무가 됩니다. 이처럼 ‘작게 나누어 반복하며 익히는’ 작업 구조는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에 특히 잘 맞습니다. 반복 속에서 익숙해지고, 익숙함 속에서 자신감이 자라며, ‘내가 키운 것’이 누군가의 식탁에 오르는 경험은 자기효능감과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식물 재배 선반과 조명, 급수 설비를 갖추고, 온도·습도·환기 장치를 설치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일정한 환경에서 일과 훈련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은 장애의 한계를 넘어 당당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23명의 발달장애인 근로인에게 ‘내일도 출근할 수 있는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4월 4일~5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바오로교실 보호작업장’을 위해 씁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 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 ① 우측 QR코드 입력(www.babo.or.kr/hand)
- ② 전화 신청: 02)727-2506 (재)바보의나눔



(재)바보의나눔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특례기부금단체)입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마르 16,7)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 주셨습니다.”(2티모 1,10)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전쟁과 긴장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이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희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주간 첫날 새벽,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때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기쁜 소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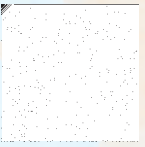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되 살아나셨다.”(루카 24,5-6)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빈 무덤 앞에서 있는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처 입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은 계속되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은 우리에게 불안과 혼란을 안겨 줍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빈 무덤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며, 하느님의 생명이 어떤 어둠도 넘어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희망은 단순한 위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희망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손을 내미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향하며, 우리는 그들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교황 레오 14세기에서는 사도적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Dilexi te)>에서, 가난한 이들의 상처 입은 얼굴과 무고한 이들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고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DT 9)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받는 모든 이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폭력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의 아픔에 응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작은 실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며,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심을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보는 책임으로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절제와 배려를 통해 창조를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모든 기술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연결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욱 깊이 함께하게 됩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과 잃을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천사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마르 16,7)

그 ‘거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를 선택하는 자리, 무관심과 혐오를 넘어 타인의 아픔에 마음을 여는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각자의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으로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새롭게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부활 시기를 맞아, 참된 생명의 희망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 그 기쁨을 나누며,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서로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十 정순택



인터뷰 | WYD(World Youth Day,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정성을 쏟고 있는 다양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주교님, 신부님을 비롯하여 봉사자, 참가자, 주제가 작곡가, 홈스테이 신청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네 번째 인터뷰’

2018 KYD 홈스테이 호스트 서일석 사도요한



내 방이 어디 있느냐?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기쁜 부활을 맞이하고 드리는 미사는 평소의 미사보다도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지난 성삼일! 특히 최후의 만찬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마르코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에는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오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릴까,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이층 방을 보여 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다짜고짜 방을 내놓으라 하는데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의아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 만난 분은 지난 2018년 한국청년대회(KYD) 때, 일본인 여학생 1명, 제주도 여학생 1명에게 기꺼이 집을 내어준 서일석 사도요한 형제님이십니다. KYD 서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온 젊은이들이 지낼 곳이 없다는 말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쓰신다는데요, 뭐. 우리 애들도 다 출가해서 집에 빈방도 있고요.” 손님 두 명을 3박 4일 정도 머물게 하려면 청소도 해야 하고, 세면

도구며, 음식이며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을 텐데도 형제님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학생들이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갈 건지 일정을 다 알려줘서 기다리거나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행사 일정이 촘촘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니 뭘 챙겨줄 시간도 없었어요.” 더 챙겨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는 형제님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 집 떠나 먼 곳을 온 젊은이들이 그저 대견하셨다고 합니다.

“행사 끝나고 며칠 후에 두 여학생 모두 감사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덕분에 정말 편하게 잘 있다가 왔다고요.”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의 일에 쓰였다는 게 기뻐다는 사도요한 형제님은 이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때도 기꺼이 집을 내어줄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쪼록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즐겁고 무탈하게 지내다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시자, 미리 준비된 방을 내어준 집주인이 있었기에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도요한 형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지난 KYD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앞으로의 WYD도 은총으로 채워질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글 서희정 마리아작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안광훈(로베르트) 신부 선종



우리 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서 소임하셨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안광훈 로베르트(Robert John Brennan) 신부님께서 선종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1941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출생하여 1965년 뉴질랜드에서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1966년 한국에 도착하여 원주교구 사직동·정선·단구동·정선성당, 서울대교구 목동성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초대 신학원장, 미아선교분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부지부장,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삼양동 선교분당, 금호1가동 선교분당에서 사목하셨습니다. 3월 24일(화)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배례성지천주교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오늘(4월 5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다음 날인 4월 6일(월)은 교구청 각 기관 휴무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2년 4월 7일 이석충 사도요한 신부(89세)
- 2023년 4월 11일 최치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6세)
- 2025년 4월 12일 차인현 알로이시오 신부(85세)

교구청 알림

자연과 함께하는 '사제, 수도자' 피정 안내

때, 곳: 7월 13일~22일 제주도 엠마오연구소/피정지도 최승정 신부
문의: 010-6462-0410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엠마오 연구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프로그램 '청년 생명교육'

주제: 죽음의 문화 / 강사: 최대환 신부(의정부교구)
대상: 생명에 관심이 있는 청년 / 회비: 1만원
때, 곳: 4월 25일(토) 14시~16시, 생명위원회 5층 교육실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신청 / 문의: 02)727-2353

'슬픔 속 희망찾기' 4월 유가족 미사 및 특강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4월 18일(토) 10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2층 소성당 / 특강: 이별은 끝나도 애도는 계속된다
문의: 02)318-3079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영성심리아카데미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1)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자존감 되찾기(문종원 신부), 기도를 시로 쓰기(김해선),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음근력 키우기(윤제연), 뮤지컬(이슬), 이탈리아어(류젠마), 비단에 그리는 공필화(김현정)

2) 성경순례 저자와 함께하는 사도행전 - 성령으로

활동하는 공동체(허영엽 신부)

때, 곳: 4월 19일(주일) · 4월 26일(주일) · 5월 3일(주일) 오후 2시~4시, 가톨릭회관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현장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순교자현양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순례 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 미사(358회)

때, 곳: 4월 7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순례

때: 4월 18일(토) · 4월 19일(일) · 4월 28일(화)
곳: 청양다라골 성지, 새터 성지, 정산성지, 요골 공소
회비: 1인 6만원 / 신청: 4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 문의: 02)2269-0413

2026 가톨릭 50+ 학교 교육생 모집

대상: 5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 곳: 교구청 별관 523호

1) 노르딕 걷기학교 기초반 / 회비: 6만원

내용: 건강을 위한 바른 걸음법, 노르딕 워킹 교육
때: 4월 20일(월)~5월 18일(월) 10시30분~12시(총 4주)

2) 성경 봉독학교

내용: 전례 독서 및 성경 봉독, 스피치 교육
때: 5월 12일(화)~6월 16일(화) 14시~15시30분(총 6주)
회비: 8만원 /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727-2385, 6 / 신청기간: 개강일 1주 전까지(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민족화해위원회

1) '2026년 평화나눔 청년 및 연구자 논문 공모' 사업

2027 서울 WYD를 앞두고 가톨릭교회의 평화 사상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논문을 공모합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대상: 만 40세 이하 청년 및 신진 연구자
접수: 3월 16일(월)~4월 17일(금) 18시까지
시상: 총 12편(최우수상 연구자 50만원, 청년 일반 300만원 등) / 제출 방법: 이메일(hmpjournal@seoul.catholic.kr) 접수
자세한 내용은 평화나눔연구소 홈페이지(sharepeace.net) 참조
2) 1507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 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금주의 '내 마음의 복복분당' : 함흥교구 계림 분당

(2026/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문의: 02)727-2047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접수

청년 Hello 기도 : 도심성 청년 피정	4월 7일 매일 첫째(주) 19시30분~21시
성무일도 : 모든 이를 위한 청년 기도	4월 10일~5월 15일 매주(금) 15시~16시30분
코바늘 손뜨개 재래보 만들기	4월 13일~5월 18일 매주(월) 14시~16시
민화로 성경 속 동서물 그리기	4월 13일~5월 18일 매주(월) 19시~21시
커피가 약미의 음료라고?	4월 14일~5월 19일 매주(화) 14시~16시
파스텔 감성, 가톨릭 초코아트	4월 14일~5월 19일(화) 19시~21시
감성을 담은 가톨릭 대블릿 일러스트	4월 15일~5월 13일(수) 15시~17시
세례성수제도장 만들기	4월(6)~5월(4) 15시~17시(19시~21시) 2주씩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4월(16)~5월(4) 19시30분~21시
레진으로 세례성 키링 및 소품 만들기(2주)	5월 26일(화) 19시~21시(2주씩)
은총의 향기(118) 향수(118) 향수 만들기(2주)	6월 22일(화) 15시~17시(19시~21시) 2주씩
편치들로 물고기 매트 만들기	6월 4일~11일(화) 14시~16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때, 곳: 4월 13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윤고는 개인전: 1전시실
홍눈솔 개인전: 2전시실
가톨릭말씀새김예술가회 전시회: 3전시실
전시일정: 4월 3일(금)~12일(주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 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집전: 김동원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
때, 곳: 4월 9일(목) 오후 2시~3시,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향심기도 2박3일 집중 피정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때: 4월 10일(금) 17시~12일(주일) 16시
곳: 명상의집(우이동) / 회비: 16만원
문의: 010-4565-8898

환경사목위원회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1) 제51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대상: 창조질서 보전에 관심 있는 모든 이
내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늘땅물벗 소개, 수료미사 및 수료식
때: 4월 14일~5월 26일 매주(화) 19시~21시(총 6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ZOOM 강의(온라인 교육은 비서을 거주자 한함) / 교육비: 3만원

2) 제85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 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제: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3) 지구의 날 소등 행사

때: 4월 22일(수) 20시~20시10분
곳: 가정 · 분당 · 각 단체 및 기관 / 내용: 각 분당 및 모든 신자분께서는 해당 시간 동안 전등 소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질서보전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며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합시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 50주년 '사랑, 더 큰 희망이 되다'

문의: 02)727-2251(caritas0927@hanmail.net)
홈페이지: <https://caritasoul.or.kr>

서울가톨릭분야별협의회(세미나)		가톨릭회관
4월 28일(화) 14시	생명을 돌보는 이들 - 여성복지	
5월 21일(목) 14시	서울가톨릭케어센터의 과거, 현재, 미래	
5월 22일(금) 15시	가톨릭 노인종합복지관의 전인적돌봄 실천	
5월 28일(목) 14시	고령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위한 역할과 방향성	
6월 16일(화) 13시30분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 - 공동체성 확립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코스트홀
9월 17일(목) 10시	심포지엄(안시절 종사자 정체성 및 현장 실천방안 연구)	
9월 17일(목) 15시	감사미사 & 기념식(경문대주교, 서울대교구장)	
		명동대성당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선한목자예수수녀회	4월 11일(토) 15시~20시	본원(길음동)	010-4882-9674
성심수녀회	4월 8일(수) 19시30분~21시30분	본원(역곡)	010-5303-1956 (문자)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	010-8867-3217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4월 11일(토)~12일(주일)	수도원(성북동)	010-6608-3217
전교가르멜수녀회	4월 26일(주일) 14시	본원(통의동, 전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010-7523-0956 / 인스타그램: @carmelitas1977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인준단체 알림

모임

멈춤, 그리고 힘-도심 속 침묵 피정

내용: 일상을 멈추고 온전한 침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5월 9일(토) 11시~10일(주일) 11시, 노들담 서울 교육관(종로구 북촌로 54) / 4월 30일까지 접수
 1인 1실 / 문의(접수): 02)2135-9398 한국CLC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때, 곳: 4월 17일(금)~20일(월)·5월 15일(금)~18일(월)·6월 19일(금)~22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분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성 프란치스코 서거 800주년 해) 청년 이태리 성지순례

대상: 미혼 남녀 청년 신자 / 문의: 010-5715-1702
 때: 7월 18일(토)~29일(수)(7월 30일 한국 도착)
 곳: 로마, 아시시, 라베르나, 피렌체 외
 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신앙선조에게 가장 큰 선물인 성체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일 둘째주(토) 4월 11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쉬고 함께
 제주의 봄 여행과 한라산,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분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철쭉·자연순례 4월 24일~26일·5월 2일~4일
 ·5월 8일~10일·5월 11일~13일·5월 12일~14일·5월 21일~23일
 ·5월 23일~25일·5월 28일~30일(성모의 밤)·6월 5일~7일,
 추자도 포함 성지순례 5월 16일~19일·5월 31일~6월 3일 / 064)796-4182, 02)773-1455 제주자연피정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분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 순례 5월 9일~11일·5월 15일~17일·5월 21일~23일
 ·6월 19일~21일·7월 3일~5일·7월 10일~12일·7월 17일~19일,
 우도 7월 24일~26일·8월 7일~9일, 추자도 성지순례 5월 4일~6일·5월 29일~6월 1일·6월 4일~7일
 ·6월 12일~14일·9월 4일~7일·9월 11일~14일·10월 31일~11월 3일 / 문의: 064)732-4702 면희의 집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엄마와 딸(미혼) 피정	5월 2일(토)~3일(주일)
영신수련 2박3일 침묵 피정	4월 10일~12일, 5월 29일~31일
세월의 지혜와 영성 피정(65세 이상)	5월 12일~21일
품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상시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5월 30일(토)~31일(주일), 6월 27일(토)~28일(주일)
2박3일	6월 12일(금)~14일(주일), 8월 5일(수)~7일(금)
3박4일	4월 23일(목)~26일(주일), 6월 4일(목)~7일(주일)
4박5일	5월 1일(금)~5일(화), 7월 22일(수)~26일(주일)
8박9일	4월 9일(목)~17일(금), 5월 20일(수)~28일(목)
40일	10월 1일(목)~11월 9일(월)

전진상 영성센터 월피정 / 문의: 02)726-0700

나의 심혼과 그리스도 영성 / www.ijscen.or.kr
 때, 곳: 4월 25일(토) 10시~15시, 명동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성령미사·강의·안수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김대영 신부

4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9695-1366
 때, 곳: 4월 16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섬, 순례(성지·자연), 말
 씬초대 /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대상: 개인 및 각 분당 단체(특화된 프로그램)
 때: 4월 28일~30일·5월 23일~25일·10월 22일~24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교육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 김정고시·수능지도 봉사자 모집 중(1365 홈페이지 참조)
 수업내용: 김정고시, 대입준비, 멘토링PG 지원·진로탐색, 자격증 취득(영상·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민 영어회화·일본어회화·연극반 등)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www.iju.or.kr)

가정교회 2026년 영성학교

때, 곳: (화) 12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월3회)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4월 성령, 5월 성모, 6월 성체, 7월·9월 성경, 10월 성가정 학교 / 강사: 이창진 신부, 김현우 신부, 박효철 신부, 한연홍 신부, 최항진 신부, 양승국 신부, 김연범 신부, 김재덕 신부, 전삼용 신부, 송봉모 신부, 윤민재 신부, 박현민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계좌: 신한 131-022-652844 가정교회회
 회비: 전액 18만원, 월 3만원 / 현장 접수 가능

그리스도교 영성 배우기

내용: 1. 소통하는 신앙인, 2. 불편함의 영성
 곳: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주최) / 계좌: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010-6791-0071 (문자)

1차	5월 6일(수) 15시~7일(목) 13시	회비: 12만원
2차	5월 27일(수) 15시~28일(목) 13시	

청년 프로그램(전교가르멜수녀회) / 문의: 010-7523-0956

기도	대면반 5월 19일(화), Zoom반 5월 21일(목) 19시
학교	30분(총10강) / 인스타그램: @carmelitas1977
청년OFF 피정	매월 셋째주(토) 4월 18일 14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6년 봄 특강

때, 곳: 4월 29일~5월 27일 매주(수) 5회-13시30분~15시30분(강의)·12시10분(미사), 교육회관 1층 성당
 회비: 6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4월 29일	봄 음악회 '카운터테너가 노래하는 성인들'	카운터테너 장정권
5월 6일	성인을 보는 눈, 듣는 귀	칼럼니스트 박찬이
5월 13일	성인들과의 만남-그림 속 상징 이야기	윤인복교수
5월 20일	관계의 대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경호신부
5월 27일	붓을 든 이웃 성인들-한국 근대 화가 이야기	도슨트김은비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4월 29일~5월 13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회비: 15만원 / 문의: 010-6655-1165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미사

때: 4월 12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53-8765
 주제: 찬양과 나눔(안준환 찬양팀) / 미사: 조성풍 신부
 (새천년복음화학교 담당 사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임)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4월 10일(금)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929-2977

군중후원회 월례 미사·특강

특강: 박상호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4월 6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안내

가톨릭여성연합회 사랑의 바자회

때, 곳: 4월 5일(주일) 10시~16시, 명동대성당 앞마당
 문의: 02)778-7543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국가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기관
 가족·모래놀이 상담, 주말 가능 / 문의: 010-2199-3439

바보의나눔 '추모·유산기부' 캠페인

고인을 위한 추모기부는 사랑을 남기고, 유산기부의 약속은 나눔으로 전해집니다
 기부 문의: 02)727-2507

성라파엘상담소 / 문의: 070-4248-7573

우울, 불안, 인간관계 어려움 / 심리검사
 법정 저소득 가정 무료 상담 / 안양(중앙성당) 1만원·분당(구미동성당) 2만원·서울 양천구 0~2만원

자비주일 행사(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찬미와 묵상이 있는 자비주일(고해성사·미사)
 때, 곳: 4월 12일(주일) 13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 문의: 02)587-9207

전문 심리 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가족 갈등, 대인기피 등
분노와 관계상처의 치유와 성장	4월 22일~7월 1일 매주(수) 14시~16시(총10주)
인생의 겨울, 미리 준비하는 중년의 시간	4월 24일~5월 15일 매주(금) 10시~13시(총4주)

직원모집

가톨릭신문사 신입경력 직원 모집

분야: 취재기자, 신문 홍보 광고 / 4월 21일(화)까지 접수
 홈페이지(http://office.catholictimes.org) 참조



신간
교회의 여정
 (시노드 교회의 순례)

앤조 비앙키 지음
 위즈앤비즈 | 212쪽 | 1만4천원
 문의: 031)986-7141

함께 걷기라는 시노달리타스를 교회법이나 절차가 아니라 세례받은 이들의 일상과 선교 안에 스며드는 영적 기질로 이해하도록 돕는 책이다. 서로의 속도를 살피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태도로서 시노달리타스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피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는 경청과 묵상, 침묵과 회심을 통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섬김과 가난의 길을 제시한다.



신간
고해 사제의 핸드북

커트 스타시아크, O.S.B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256쪽 | 1만8천원
 문의: 02)945-2947, 010-2572-1365

고해성사가 고해자와 고해 사제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인격적 체험임을 강조하며, 고해 사제가 마주하는 부담과 기회에 주목하는 책이다. 성사 신학에 기반하여 사제와 고해자간 만남의 원칙과 고해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을 다룬다. 사제와 신학생,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폭넓게 이해하고 자비로운 경청자이며 치유자로서의 사제의 역할을 깨닫도록 돕는다.



신간
지혜 여정-오경2
탈출기

함원식 지음
 생활성서사 | 176쪽 | 1만5천원
 문의: 02)945-5987

《지혜 여정 오경2 탈출기》는 명화와 최신 고고학 자료를 통해 성경 공부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안내서다. 성서 신학 박사 함원식 신부의 해설로 탈출기의 재앙을 우상과의 영적 전쟁으로 재해석하며 참된 자유의 구원 여정으로 이끈다. '지혜 여정' 구약 편 18권 완간의 결실로,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묵상을 함께 원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교재다.



음악회
2026 평화나눔음악회
The Present

일시: 5월 13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문의: 02)780-5054 또는 cpbcculture@gmail.com
 전석 무료(후원자 우선 초대, 1인 2매까지 신청 가능) / 예매: 큐알(QR) 후 신청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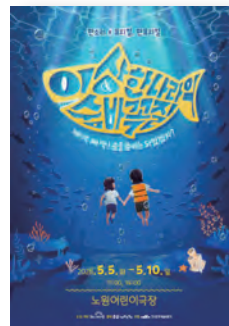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이 창립 38주년을 맞아 그동안 받은 소중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2026 평화나눔음악회>를 개최한다. 평화와 화해를 염원하며 열리는 이번 공연은 배우 정일우가 사회를 맡고, 크로스오버그룹 라포엠,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cpbc소년소녀합창단, 평화나눔오케스트라(지휘 박상현)가 출연하여 선물 같은 무대를 선사한다.



음악회
선우경식 선종 18주기
추모 감사 음악회
제20회 요셉의원 자선음악회
'노래의 날개 위에'

일시: 4월 13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주교좌 명동대성당 대성전
 전석 무료(자유석)
 문의: 02)3668-8426 요셉나눔재단법인

제20회 요셉의원 자선음악회 <노래의 날개 위에>가 4월 13일(월) 명동대성당에서 열린다. 고(故) 선우경식 원장 선종 18주기를 맞아 마련된 추모와 감사의 음악회로,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전하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이다. 후원자와 봉사자, 교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음악회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일시: 5월 5일(화)~10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 문의: 02)2278-5741
 장소: 노원어린이극장 / 입장료: 전석 3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4명 30% 할인

어린이날 주간 공연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이 5월 5일부터 10일까지 노원어린이극장에서 열린다. 판소리 해설과 뮤지컬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바닷속 어벤저스가 된 아이들이 '짜깁상어'에 맞서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다. 가족이 함께 슬픔을 넘어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공연이다.

생미사·연미사 지향 신청 방법 안내

생미사·연미사 지향 신청은 본당 사무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전화 신청 및 사무실 대리 신청 불가). 주교좌 성당이기에 연중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되는 미사가 거행되고, 여느 본당보다 신청자가 많아 신청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요일별 마감 시간 이후부터는 다음 날 오후 미사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원하시는 날짜 사흘 전까지 방문하시면 마감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여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숙지하시어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사무실 > 방문 신청 및 요일별 마감시간

- 화~금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7시 미사 ~ 다음 날 오전 7시·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토요일 : 오후 4시에
당일 오후 6시·7시 미사 ~ 일요일 오전 7시·9시·10시·11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일요일 : 오후 2시에
당일 오후 미사 ~ 월요일 오전·오후 미사 & 화요일 오전 7시·10시 미사까지 접수 마감
☞ 월요일은 성당 사무실이 휴무이므로 월요일 오전과 오후 미사 모두 오후 2시에 함께 마감됩니다.

❖ 법정 공휴일 미사 신청

법정 공휴일(설 연휴·삼일절·선거일·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현충일·추석 연휴·개천절·한글날)과 근로자의 날은 성당 사무실 휴무입니다. 휴무일 전후로는 사무실 방문 신청 마감 시간이 평시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무 기간 중 일요일과 1월 1일, 8월 15일, 12월 25일은 정상근무합니다.)

❖ 대성전 > 현장 신청

-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6시 미사, 화~토요일 오전 10시 미사에 한해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성전 입구에 비치된 미사예물 봉투를 작성하시고 예물을 담아 제대 앞에 놓인 생미사함(연미사함)에 미사 시작 10분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미사 전 수거하여 사무실에서 미리 접수된 지향자 명단과 함께 신부님께서 추가로 호명해 주실 것입니다.
☞ 지향자가 가톨릭 신자이면 '성(姓)+세례명'으로 호명되고, 비신자일 경우 '성명(姓名)'으로 호명됩니다.

❖ 신청 불가한 미사

- 주일 및 의무 축일 낮 12시 교중미사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 매월 마지막 목요일 오후 7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 평일미사가 장례미사로 봉헌될 때
- 평일미사가 교구에서 정한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될 때

❖ 연미사 신청만 가능한 미사

- 매년 명절(설·한식·한가위)과 위령의 날(11월 2일) 봉헌되는 모든 미사는 '합동 위령미사'로만 봉헌되어 생미사 신청은 불가하고, 지향자 호명은 하지 않습니다.

❖ 기부 천사 ❖

명동 종합계획 2단계 기금
(3월 9일 ~ 3월 29일 : 5,090,000원)
누계 : 7,793,250,977

익 명 : 5,000,000원 | 익 명 : 90,000원

기부 천사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주님과 음악 사이에」 연주회

·일시/장소 : 매월 첫째 주일 오후 3시 30분 / 명동대성당 대성전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 세례자 또는 예비세례자(1년 이내 세례예정)
초 2~5학년 남아

문의 및 지원 : QR코드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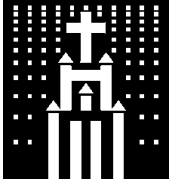
◎ 명동대성당 미사안내봉사단 단원 모집

·활 동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주일 오후 6시 미사
·자격조건 : 천주교 세례 받은 신자
·제출서류 : 입단 신청서,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문 의 : ☎ 010-5894-9943 (문자)
이메일(samloms00@gmail.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부와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봉사내용 - 명동성당 사목회 주요 봉사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총현회 :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2838-6401
·대건회 : 짝수달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화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8337-6972
·만천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8611-4097
·하상회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3687-2322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전례·성음악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주말학교·양육 이승규(토마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이사악 세베로 신부
주교좌성음악감독 최호영(사도요한)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34	봉헌 : 132, 129, 131	성체 : 128, 130, 135	파견 : 136
-------	----------	--------------------	--------------------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당 사제단, 수도자, 사목협의회 일동 -

◎ 4월 예비신자 교리반 (6개월 과정)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반	오후 7:30	교구청본관 402호	이세호 (시몬) 신부
토요반	오후 4:00	교구청 본관 401호	항 루시아 수녀

- 목요/토요반 택1 (2시간 교리수업, 주일미사 참례 필수)
- 환영식 : 4/5(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
- 첫수업 : 4/9(목) 19:30 교구청본관 501호, 4/11(토) 16:00
- 전화·사전 신청 불가 ※만 19세 이상만 신청가능
- 준비물 : 교재 및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천사(천원의 사랑)가 되어 주세요!

매월 첫째 주일미사에는 헌금 봉헌 때 천사 바구니가 함께 비치됩니다. 4월 천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는 '마푸토 대신학교와 리칭가교구 소신학교'로 향합니다.

◎ 상설 고해성사 재개

4월 7일(화) 11시부터 상설 고해성사를 재개합니다.
(☞ 고해성사 요일과 시간은 '주보 하단 표' 참고)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일시/장소 : 4/9(목) 오후 7시 40분 / 대성전

◎ 연령회 월례회의 : 4/12(일) 오전 11시 소성당

—하느님의 종, 바보 김수환 추기경—

그리스도 교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교인은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신앙과 사랑 제2권」 중)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알 수 없는,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그분께 대한 완전하고도 온전한 마음입니다.

◎ 2026년 명동보름장 개장

- 기간 : 4월~11월 (첫째·셋째 주일) 10:00~16:00
- 장소 : 명동대성당 들머리 입구, 가톨릭회관 앞마당 일대
- ※명동보름장은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직거래장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바구니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3/23-3/29).....39,283,400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헌금.....41,239,270
-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 헌금.....20,336,000
- 감사헌금 (3/23-3/29).....13,622,000
- 김 M.에우제니아 / 김 아가페 / 김 안젤라 / 김 헬레나 / 서 세실리아 / 서 안드레아 / 이 리베라도 / 이 모세 / 이 헬레나 / 임 사무엘 / 장 파비올라 / 전 마리안나 / 전 요셉 / 조 체칠리아 / 최 로사 / 최 아녜스 / 익명(2)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유이 새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주일미사 (토요일)	18:00(안젤루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9:00(3545 청년미사)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평일미사	월 07:00, 18:00 화-금 07:00, 18:00, 19:00 토 07:00	고해성사 (Confession)			
	성지미사	월-토 10:00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Sun.	08:30 - 08:50			
		Sat.	16:00 - 17:00			